

아, 봄이로구나~

클로이인환(작가)



이분법은 구사하기에 따라 대단히 유용하고도 편리한 논법이다. 한 갑자(甲子)도 더 지난 일이지만, 중국의 문학가 임어당 선생은 <생활의 발견>에서 사람의 품성을 찰흙과 물로 나누었다. 찰흙을 반죽하는 데 물이 너무 많으면 물러서 형상을 만들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너무 적으면 딱딱하여 빚기 어렵다, 따라서 이 둘이 적당해야 한다는 것인데, 찰흙을 현실 혹은 이성, 물을 이상 혹은 감상으로 알아들으면 그럴 듯해진다. 하지만 사람에게서는 찰흙과 물만 있는 게 아니다. 먼지도 있어야 하고, 바람도 있어야 하는 법이다.

누군지 이름은 까먹었지만 누군가는 이 세상의 사람을 피라미드를 직접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종류로 양분했다. 피라미드를 직접 보면 인류와 문명의 힘을 실감하게 된다는 뜻인 모양인데, 이 말은 '세상에는 하늘 높은 줄만 아는 사람과 땅 넓은 줄만 아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 로 바꿔놓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터이다. 하늘과 땅 문제는 사람이 고귀한 존재냐 하잘 것 없는 존재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훨씬 싱싱한 것으로는, 이 세상에는 인터넷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인터넷을 하는 사람은 귀족, 하지 않는 사람은 상민'이라는 말로도 회자되었는데, 10여 년 전, 10여 년을 내다보고 한 이야기였다. 그 10여 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을 하는 건 뭐 그리 어려운 일이 아

니므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귀족의 지위에 오를 수 있게 된 듯하다. 현대는 정보의 시대라 하고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하니, 귀족과 상민보다 선장과 선원으로 나누는 것도 가당하지 않을까 싶다.

내게 누가,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겠소? 이분법적으로 구술해 보시오' 하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 세상에는 봄이 오는 것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고.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여, 업동을 넘기고 푸른 기운이 감도는 들에서 햇볕을 받아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고 싶다. 봄의 햇볕은 살아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느낌을 준다. 세상을 살면서 새록새록 무릎을 치게 만드는 우리 할머니의 어록(?) 가운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씀이 어찌 그리 딱 맞는 것일까 하고 새삼스럽게 무릎을 치게 만드는 것이 봄 햇볕이다. 봄 햇볕이 내리는 들에 있으면, 어떤 까닭이나 조건 없이 가슴 한가운데로부터 뿌듯함이 치밀어 올라,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존재에게 감사하는 기분이 된다. 종교적으로 흔히 말하는 은총이라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봄은 가슴으로도 오지만 머리로도 온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꽃이 피고, 꽃이 피면 내 마음도 피어난다 하고는 주변을 둘러보지만, 살다 보면 '야, 봄이다' 하게 되는 것보다 봄이 왔는데도 이게 뭐야 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 유명한 오연철구의 슈퍼스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의미에서도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솔직히 말해 봄이 오면 나는 덜컥 겁부터 난다. 싸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운전 중의 졸음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봄이 왔으니 더 많이 싸돌아다니고 싶을 것이고, 그만큼 더 졸릴 텐데 '이것 참 큰 일 이군' 하는 걱정이다. 하긴 운전 중에 졸리면,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으니 아무데나 차를 세워놓고 고양이 눈을 하면 되니 그제 걱정이라고까지 할 것까지는 없겠다. 봄이라면 말이다.

작년 가을 무렵 나는 한반도에서 최고 남쪽인 제주도로 왔다. 팔자 좋게 놀러 다닐 형편은 아니고 제주행을 결행한 데는 다른 사정이 몇 가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근래 기름값이 엄청 비싸다는 것이었다. 어디 처박혀 있어도 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몸이니, 따뜻한 남쪽나라로 가면 겨울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였다. 그런데 내 예상은 형편없이 어긋나고

말았다.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제주도지만 대신 그 유명한 바람이 있었고, 그것을 간과한 탓이었다. 겨울 내내 태평양과 백록담 사이에 자리 잡은 골방에 처박혀 살벌한 바람소리를 들으며 무슨 남쪽나라가 이러냐며 오돌오돌 떨었다. 내 평생 가장 추운 겨울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기록 작성에는 추운 날씨만 공헌을 한 것은 물론 아니다.

겨울이 혹독하면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게 마련인 것은, 섬이나 육지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마찬가지다. 애타게 봄을 그리며, 모처럼 비행기 샀 들어 제주도에 왔으니 바다로부터 오는 봄을 맞이해 보자하고, 그 억센 바람을 무릅쓰고 바닷가로 나가 이제나저제나 하고 봄을 기다렸다. 그러나 봄은 쉽게 오지 않았다. 봄이 오면 바닷물 색깔부터 달라진다고 하기에 유심히 살펴보았으나, 그게 그거였다. 어제의 물빛과 오늘의 물빛이 다른 적은 몇 번 있었으나 그게 봄이 와서 달라진 건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달력상으로 겨울에는 갈치잡이 배가 많이 다니던 것이 봄이 오니 한치잡이 배가 많이 다니더라 하는 정도였다. 남쪽나라의 바닷가에도 꽃샘추위는 사정 봐주지 않고 찾아왔고, 봄비라는 허울을 쓴 찬비가 보고장의 유명한 바람과 합세하여 훑날리기를 거듭했다. 내 골방에서의 봄은 심심해서 그냥 켜놓은 TV속에만 있었다. 제주도 지방 방송의 뉴스에는 육지 방송에는 없는 '오늘의 관광객 수' 가 나오는데, 그 숫자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뿐이었다.

봄을 맞이하겠다고 바닷가로 나갔다가 바람에 쫓겨 돌아오기를 거듭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올 봄은 언제고 오겠지 하고 한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어느 날,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읍내 출입을 했다. 은행에 들러 잔고가 바닥난 통장을 박박 긁어 담배 몇 갑과 소주 몇 병, 라면 몇 봉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무심코 시선을 길가로 던졌을 때 아, 하는 탄성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왔다. 노란 유채꽃의 물결이었다. 때마침 왈각 바람이 불어 노란 바다가 크게 출렁거렸다. 유채는 몇 년 전부터 제주도에서 관광용으로 많이 심고, 겨울에도 양지 바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골방 앞 마당에도 노랗게 피어 있는 것인데도 나는 그때 왜 그렇게 놀랐는지 알 수 없다. 그때 아! 하는 탄성은 가슴으로부터 울려나온 것이었다.

아, 봄이 왔구나. ㅃ